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36.58 (-20.30)	898.04 (-14.51)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3.863 (-0.002)	1327.80 (-3.30)



리스크 관리 '책임 배분'... 판단기준 모호, 실효성 글썽

마비되지 않는 금융사고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

〈下〉 제재보다 예방이 먼저

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임원별 책임명시 '책무구조도'
충분한 노력 여부 증명 어려워
금융당국 영향력 강화 우려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에서 횡령과 자금유용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사고의 책임대상을 대표이사(CEO)와 임원으로 명확히 했다.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

다만, 충분한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외려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CEO "몰랐다" 금지... 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마련이다.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더라도 금융사고 발생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설명이다.

우선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는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담당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고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이다.

임원은 책임영역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미흡사항을 파악·대응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시 회사내 주요 책무에 책임임원을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중복·공백·누락하거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임지는 임원이 다를 경우 책임은 대표이사가



러시아 출발 전 의장대 사열하는 김정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10일 자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행 열차에 탑승하기 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떠났으며 군 핵심 간부들이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진다.

대표이사는 또 임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체계 마련에도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 금융사고 발생시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추가한다.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 실효성 혼란·관치강화 우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35조2를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대상으로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를 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내년에도 1%대" '韓 저성장' 경고

정부 비롯 국내외 기관 '비관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관이 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는 한국 GDP성장률이 지난해 2.6%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5% 미만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도 회의론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5곳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씨티그룹이 1.7%로, 기존 1.8% 예측보다 더 내렸다. JP모건의 전망과 같다. UBS는 1.7%로 이보다 더 낮고, HSBC(1.6%)와 노무라(1.5%)는 1%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스도 기존 2.3%에서 최근 2.0%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2.2%, 골드만삭스가 2.6%를 제시하는 등 8개 IB 중 3곳만이 2%대를 점치고 있다.

이들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1.9%다. 올해 2월 말(2.1%)에서 3월 말(2.0%)로 소폭 떨어진 뒤 평균치 2% 선은 결국 무너졌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베일 벗은 삼성판 생성형 AI... "개발 속도 30% 향상"

삼성SDS '리얼 서밋 2023' 브리틱코파일럿·패브릭스 공개 "업무 전 영역 생산성 극대화"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가 '리얼 서밋 2023' 현장에서 생성형 AI 솔루션 도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가 기업의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초자동화) 혁신 선도에 나선다. 삼성SDS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브리틱코파일럿(Brity Copilot)'과 '패브릭스(Fabrix)'는 기업 활동 전영역에 걸친 생성형 AI 도입을 돕고 생산성 극대화를 지향한다. (관련기사 3면)

삼성SDS가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리얼 서밋2023' 컨퍼런스를 열고 기업

용 생성AI 서비스 브리틱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발표했다.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 브

리틱 코파일럿과 클라우드 시스템에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인 패브릭스는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을 돕는다. 오픈AI의 ChatGPT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LLM(Large Language Model)과 간단히 결합해 업무 전영역 혁신을 끌어내고 동시에 뛰어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강력한 보안을 지원한다.

황성우 삼성SDS 대표는 "브리틱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는 앞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업무의 틀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며 "LLM은 변동성이 많은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기 때문

에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오피스 업무의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초자동화)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브리틱 코파일럿은 메일, 메시지 영상회의, 데이터 저장 등 공통 업무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솔루션이다. 기본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로봇(RPA)이 단순 반복 업무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회의록을 작성하고 프로젝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한다. MS 365 코파일럿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결재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이종섭 국방 사표 수리 여부에 "인사 전 언급 않겠다" /사진 뉴시스
▲ 당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약자복지 실현"

▲ 민주 과방위원, 여 단독 회의 강행에 "반헌법적 발상"
▲ 여당, 민주 '태영호 징계안'에 "단식쇼 중인 이재명 심기 경호"



▲ 홍준표, '신원식 국방장관실' 겨냥 "군·검찰 정권 전리품 여기지 말라" /사진 뉴시스
▲ 크렘린 "푸틴, 밤 늦게까지 EEF 일정"... 김정은 회담 13일 유력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 133조 증권사 연체율 1.4%p 증가한 17%

금융위, PF 정상화 상황 점검회의
전체 연체율 2.17%, 0.16%p ↑
“증권사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7%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상황 점검을 비롯해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

F 대출잔액은 133조1000억원 규모다. 연체율은 2.17%로 3월 말 대비 0.16% 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작년 말 1.19%에서 지난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다만 업권별로 보면 격차가 크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 대비 1.4%p 높아졌다. 지난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로 큰 폭으로 뛰었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상승폭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크게 둔화됐다”며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2%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의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

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 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2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서울관광 재도약 결의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관광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로” 서울시 ‘3·3·7·7 관광시대’ 연다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

서울시가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로 거듭나고자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빛섬에서 진행된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관광 10가지 핵심과제’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시는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하는 ‘3·3·7·7 관광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고, 야간까지 이어지는 관광 수요 창출에 팔을 걷는다. 여의도 150m 상공에서 서울 야경을 즐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을 비롯해 한강 교량, 청계천에 야경과 일몰 명소를 만들고 ‘한강 드론라이트 쇼’를 상시 개최한다.

대규모 관광 인프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대관람차, 노들 글로벌 예술섬 같은 랜드마크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류·마이스·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성장 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숙박 시설도 늘린다. 단기적으로는 유희시설을 활용해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관광숙박시설 신·증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벤트성 팝업 호텔, 한강 수상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동남아(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시장에 관광 사무소를 두고 현지 밀착 마케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개척한다. 2025~2026년을 서울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관광객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광객이 도시에 감동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니라 관광 현장의 진심 어린 서비스”라며 “이번 미래비전 선포를 계기로 시와 업계가 뜻을 모아 서울관광의 품질, 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서울’은 머지않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i@

개별화되는 여행 추세 발맞춰 교통·결제 등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결제 등 편의서비스 확대
산·골목길 등 곳곳에 콘텐츠 마련
‘서울관광 10가지 핵심과제’ 선언
유희시설 활용 숙박수요에 대응

우선 시는 소규모, 개별화되는 여행 추세에 맞춰 교통, 결제 등 여행자 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서울형 블루플라크(사연을 소개하는 파란색 명판)’를 관광시설에 배치해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소개한다.

고부가 관광 육성을 위해 의료·웰니스, 마이스·블레저(비즈니스+레저) 분야를 키우고 국제 스포츠 대회, 해외 수학 여행단을 유치, 관광 다양화를 꾀한다.

일상 공간과 산, 골목길 등 서울 곳곳에 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

‘수출 부진’ 국내기업 매출액 4.3%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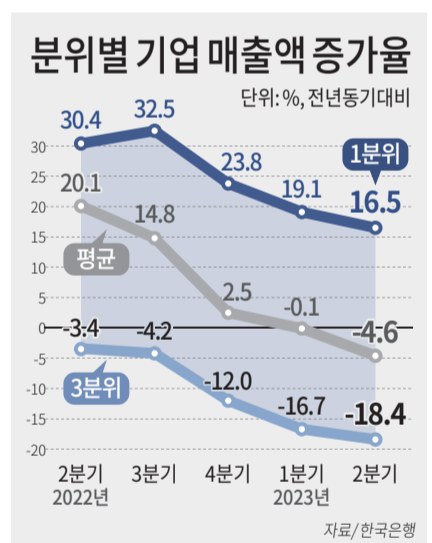
한은, 2분기 기업경영 분석
제조업, 석유화학·기계 중심 6.9% ↓
매출액영업이익률 3.5%p 떨어져

2분기(4~6월)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며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IT경기 회복이 더뎠으며 반도체 수출액 또한 줄어든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이 국내 주요기업 실적 분석한 ‘2분기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년전과 비교해 4.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제조업은 석유화학(-17.1%)과 기계·전기전자업(-15.4%)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9% 하락했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며, 수출이 감소했다.

비제조업은 같은기간 전기가스업(19.8%→10%)과 운수업(-5.9%→-



14.8%)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0.7% 줄었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운수업은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하며 운수업 매출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판매가격이 하락하며, 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기업의 매출액영업이

익률은 2분기 3.6%로 1년 전(7.1%)과 비교해 3.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업(12.1%→2.9%)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채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과 건설업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 팀장은 “일부업체의 건설현장 붕괴, 재시공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추가로 부실등이 많이 이뤄지면서 총당금을 쌓는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안정성 지표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의 2분기 부채비율은 90.8%로 1년전(91.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12월 결산법인인 미지급 배당금을 (장부상) 부채로 잡아놓기 때문에, 2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부채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IMF “중 성장 둔화면 韓, 추가 하방압력”

》1면 ‘내년에도 1%대’서 계속

기획재정부(2.4%)와 한국은행(2.2%)도 전망치가 2.5% 미만이다. 국제기구 중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G)이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등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달 24일 내년 전망을 기존 2.2%에서 0.1%p 낮췄다. 한은은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시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1.9~2.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변수에 따라

1% 후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가.

한은은 올해 2월 전망치 2.4%에서 5월(2.3%)과 8월(2.2%) 등으로 2분기·3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내려 잡았다.

IMF도 이달 6일 기재부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경기 하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조언했다. 협의단의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구조개혁 노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씨티그룹 등 주요 8개 IB의 전망치 평균은 1.1%에 그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제재 다를 경우 차별 등 논란의 소지”

》1면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서 계속

‘상당한 주의’ 정도를 금융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가 금융회사마다 다를 텐데,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하지만, 제재가 다를 경우 차별 논란, 솜방망이 처벌, 차별 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직원 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도

논란이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제재를 면제하면, 직원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직원의 책임을 임원까지 물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원 1~2명 때문에 임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키우고,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삼성, 'AI칩' 생태계 새판 짬다... 자체개발 등 저변확대 모색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AI칩이 높은 성능과 낮은 가격으로도 전장을 내밀었지만,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좀처럼 빈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가 이날 개최한 '리얼 서밋 2023'에는 엔비디아 산커 트리베디 수석부사장이 참석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SDS가 새로운 기업형 AI 서비스를 삼성전자와 함께 만들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날 자리에 없었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협력을 강조했다. 삼성SDS도 엔비디아 AI칩을 쓴다는 의미다.

글로벌 주요 업체 협력 강화 '하이퍼클로바X' 칩 개발 순항 "엔비디아, 대체 불가능 아냐"

삼성SDS뿐만이 아니다. 네이버도 지난달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 칩을 활용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LG AI연구원 역시 엑스원2.0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반도체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밖에도 KT는 물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역시 엔비디아 AI칩을 구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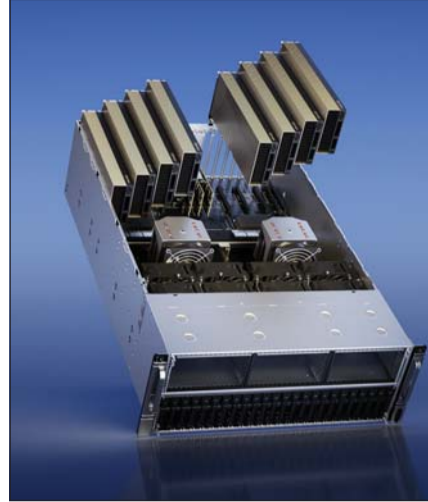
AI반도체는 병렬 연산을 하는 칩을 가리킨다. 단순한 계산을 여러번 빠르게 해야하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3D 그래픽을 만들어 주는 그래픽 칩(GPU)과 같은 원리다.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은 올해 534억달러(한화 약 70조원)로, 연간 2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며 2027년에는 1194억달러(약 158조원)으로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일찌감치 AI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시장을 선점하는데 성공했다. GPU에



삼성전자 서초사옥



엔비디아 AI 서버

AI성능을 높여주는 기술과 HBM 메모리를 합친 A100과 H100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엔비디아 AI 칩은 연산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쿠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개발 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쿠다 라이브러리는 오랜 노하우를 담고 있어 대체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세금'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다만 엔비디아 AI 칩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 H100의 경우 가격이 5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 업계가 AI칩에 투자하기 위해 스토리지 등 다른 분야 투자를 대폭 줄였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GPU를 NPU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NPU는 신경망을 본딴 반도체로, 병렬 연산에 특화해 만들어졌다. 구조가 간단하고 개발 난이도가 높지 않아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특히 AI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렴한 AI칩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종전까지는 대형 서버 업체 클라우드를 통해 AI를 사용했지만, 보안과 최적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서버를 운영하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대체재를 찾아나선 상태다. 네이버는 삼성전자

와, KT는 리벨리온과 협력하고 있다. LG도 일찌감치 구글과 손잡고 TPU를 엑스원에 적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구글과 아마존이 자체 칩을 도입하고, 텐스트레נט를 비롯한 스타트업도 고성능 AI칩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텔과 AMD 등도 AI칩을

새로 출시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사피온 등 신생 업체들이 엔비디아 GPU에 비견할만한 성능을 입증했고, 이를 뛰어넘을 제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에 최적화한 새로운 AI칩을 순조롭게 개발 중으로 알려

졌다.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AI칩을 사용한 슈퍼 컴퓨터 '도조'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모건스탠리가 도조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60%나 높인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AI칩이 당장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 붐으로 업계간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 새로운 AI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모할 시간조차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를 활용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쿠다 라이브러리 활용도가 높긴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며 "AI가 더 대중화되면 저렴한 AI서버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AI칩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기업 '하이퍼오토메이션' 가속화"

>> 1면 '베일 벗은 삼성판...'서 계속

삼성SDS는 기업의 주요 프로세스 전영역에서 실질적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 시스템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삼성SDS 자체적으로 이 솔루션들을 시범 적용한 결과 개발자의 개발 속도는 30% 향상됐고, 성능 검증 속도는 2배 빨라졌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운영에서 업무 문서 작성 시간은 75% 줄었고, 고객 요청사항 대응 처리 자동화율은 6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 지식 자산, 업무 시스템 등 IT 자원을 한 데 모아 임직원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기업은 패브릭스를 활용해 생성형 AI와 업무 시스템을 더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 패브릭스는 LLM 목록에 다양한 LLM을 저장하고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한다.

구형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은 "기업은 하나의 LLM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성형 AI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패브릭스를 통해 모든 업무 시스템과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을 쉽고 간편하게 연결해 하이퍼오토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저장, 전처리 등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통해 안전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의 반쪽을 위한 KB금쪽같은 펫보험

내 발소리만 들려도 현관에 코를 박고
하루 온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의 반쪽인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으니까

아프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

**KB금쪽같은
펫보험은?**

1 반려동물치료비 (특약)

2 무지개다리위로금 (사망) (특약)

3 반려동물양육자금 I, II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특약)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기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87277호(2023.06.05~2024.06.04)

KB손해보험

철강·자동차·조선 ‘연쇄파업’ 우려… ‘兆 단위’ 손실 직면

포스코, 사상 첫 파업 ‘떡구름’
현대제철, 올 임금협상 조건 제시
현대차, 피크 아웃 부분파업 우려
“노사 간 양보… 대승적 결단 필요”



지난해 임금협상 상견례 갖는 현대차 노사.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내 산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매년 이같은 일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산업계 전반의 체질개선에 따른 인력 구조 변화로 전체적으로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특히 ‘산업의 쌀’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자동차, 조선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이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7일 경북 포항 본사 앞에 모여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을 알렸다. 포스코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

입한 것 창립 55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중노위 조정기간 안에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중노위에 쟁의

행위를 신고하면 파업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곤혹을 치른 현대제철은 올해도 파업 위기에 놓였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합원 87.33%가 찬성하며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협상 조건으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의 25% 특별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하기 휴가 및 산정 휴일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양사 모두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인건비 총액의 70%를 넘는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현대제철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 465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4% 감소한 수준이다.

만약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고로를 갖춘 일관제철소라는 점에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가동하는 연속 조업 체제인 일관제철소 특성상 일부라도 조업이 중단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노사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만형인 현대차는 지난달 18일 열린 17차 교섭

이후 노조가 파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91.76%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8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권도 확보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2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앞둔 상태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매분기 영업이익 상승기조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오랜 기간 노조의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 비용을 부담해 왔다. 지난 2016년 노조의 24일에 걸친 파업으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3조1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노조가 24일간 파업을 강행하면서 생산 차질 대수만 8만9000대, 손실액은 1조8900억원에 달했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의 움직임에 다른 사업장 노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9월 13일 1시간, 14일 7시간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 9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고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 파업권을 얻었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산업 현장이 멈춰설 경우 이와 연관된 산업 전체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간 양보를 통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DB손해보험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고물가에 과일·채소 안먹어 비뚤이 농산물로 소비 대응

3高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
유통기한 임박 등 실속형 소비 급증 ↑

소비자들은 물가가 급상승한 최근 3년 동안 과일, 채소의 소비를 우선 줄였고 비뚤이나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 소비를 늘리며 대응했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소비자 표본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3년간 진행된 3고 현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선식품 구매액은 2019년 37조8610억원에서 2020년 41조8440억원→2021년 42조6330억원→2022년 39조7170억원이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구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해 코로나19 발생 전 추세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가 2019년 95.5에서 2022년 112.4로 17.7% 급등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

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채소, 축산물, 과일 순으로 높았지만, 과일의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소비자는 물가가 오르면 농축산물 중 과일 구매를 가장 많이 줄였다. 반면, 가격이 내릴 경우, 구매를 늘리는 농산물도 과일 비중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필수재 성격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속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속형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비뚤이 농산물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에 부담을 갖는 소비자는 마감 할인 등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을 주로 찾았고, 구매와 조리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냉동농산물을 선호했다. 맛, 안전성 등 종합적인 선호도는 비뚤이 농산물이 일반농산물 다음으로 높았다.

/차상근 기자 skc8472@

내 집에서 내일의 집까지 KB부동산

살고 있는 집에서, 사고 싶은 집까지
한번에 관리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보 앱**



내 집 찾을 때

빠른 시세 트렌드와
차별화된 입지 분석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매물 정보 제공



내 집 마련할 때

오직 KB부동산 고객에게만
추가우대금리 제공 (1년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0.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0.2%



내 집 관리할 때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가격 변동 내용 알림 및
생활 편의 정보 제공



지금 다운로드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최대 연체이자율은 15%입니다.)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최대 연체이자율은 15%입니다.)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 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상환방법 및 이자 부과 시기 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KB부동산 매물 구입자금 대출 서비스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가입 전 서비스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리 우대 혜택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에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431호(2023.08.25), 유효기간 2023.08.25~2023.12.31 까지

“인태지역과 경제·안보 협력… 韓·中·日 정상회의 추진”

(인도-태평양)

尹대통령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인도와 전통적 제조업 분야 넘어 첨단제조업·디지털·우주협력 논의 인니와 다양한 분야서 22건 계약 리창·기시다 총리 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5박7일 간의 순방 일정에 대해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들 국가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며 “인태 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인도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다”며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우주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민 방미 때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와 우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협력 MOU(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도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 공정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선 올해 초 발효된 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에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식품, 병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며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태 지역에서의 역대 글로벌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역내 글로벌 안보 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며 “그리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이뤄진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檢, 증거 단 한 개도 없어… 국민·역사가 판단할 것”

이 대표 단식 13일차… 검찰 재출석 “민생·국민 생명·안전 주력 부탁”
박광온 “인단 소환 조사 지나쳐”

단식 13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에 재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수원 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지난 9일에 이어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

했지만 증거라곤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려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

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이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방지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한 후 검찰청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식을 2주 가까이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의총 공개발언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검찰총 출신의 김희재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이번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 내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 측 주장에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번에 부결시켜서 당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교사

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아동학대 수사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676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

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도 맞추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감에게 조사·수사 기관 의견 제출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겐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해당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구가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

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시나리오 연구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 _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_ 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_ 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금리 상승에 자금조달 부담 확대 카드사, 채권발행 완급 조절 필요

상반기 카드사 5곳, 연체율 상승 연말~내년 1분기 금리 급락 관측 낮은비용 조달로 연체율 해소 기대 업계 전반 조달창구 다변화 요구



연체율 금리가 시장금리와 함께 오르면서 카드업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뉴시스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고채 금리와 함께 여전체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말 채권시장 안정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채권발행 완급조절이 요구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여신전문채권(AA+/3년물) 금리 상단은 연 4.56%다. 지난 1월 이후 최고점이다. 국고채 금리와 콜금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스프레드(가산금리)는 0.29%포인트(p)까지 축소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동안 카드사의 조달 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카드업계가 채권발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 예상과 함께 오는 연말과 내년 1분기 사이에 시장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 관측이 나와서다.

카드사 순이익 악화의 주범으로 조달 비용 증가가 꼽히는 만큼 완급 조절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내 요인만 놓고 보면 기준금

리를 인상할 동기 부여가 없다. 한국은행은 매년 물가안정목표제 2%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 결정 등의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는 연말 채권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희소식이다. 연체율과 조달 부담을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의 금리도 함께 오른다.

그러나 올해 카드사가 3개월 이상 미회수한 채권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달 부담 대비 대출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업계 관측대로 연말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 연체율을 해소할 수 있다.

올 상반기 현대·우리카드를 제외한 전업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의 연체율이 일괄 상승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하나카드다. 1년 사이 0.50%p 올랐다. 이어 같은 기간 ▲신한카드(0.39%p ↑) ▲KB국민카드(0.24%p ↑) ▲롯데카드(0.21%p ↑) ▲삼성카드(0.20%p ↑) 등이 뒤를 이었다.

미(美)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가 분수령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또한 세수 부족을 겪으면서 국제 발행량을 확대하고 있다. 선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에 조달창구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시장은 변수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만큼 카드사가 유동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채권발행을 가파르게 줄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채권시장 안정화는 금융권 전반에 희소식이지만 전망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걸쳐 조달 창구 다변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우리금융F&I, 800억 회사채 발행 성공

발행금액의 5배 초과 모집액 달성 수익성 고려 회사채 발행 증액 검토

우리금융에프앤아이 8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으로 총 4150억원의 유효수요가 몰려 발행금액 5배를 초과하는 모집액을 달성했다.

이번 발행은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설립 후 첫 공모 회사채 발행으로 채권 등급 'A-'를 고려했을 때 흥행을 거둔 셈이다.

발행금리는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금리)' 기준 18개월물은 14bp(1bp=0.01%포인트), 24개월물은 25bp이며, 발행 예정일은 오는 18

일이다.

또한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NPL(Non Performing Loan·부실채권) 투자 확대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해 최대 1500억원까지 회사채 발행 증액을 검토 중이다. NPL 투자는 저평가된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관계자는 12일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집물량을 초과한 주문을 받은 것은 당사의 사업경쟁력, NPL 투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우리금융그룹 지원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비씨카드 본사에서 최원석 대표이사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최종 입상 7개팀이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씨카드

신한페이 포인트 매달 50회 추가 적립

카드 News

비씨카드,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전국 대학생 7개팀 최종 선정

삼성카드, 추석맞이 쇼핑 행사 트레이더스 최대 50%할인 혜택

신한카드가 자사 페이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했다.

◆ 건당 최대 1000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

신한카드는 신한페이 결제 시 마 이신한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플레이팡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레이팡팡은 신한페이를 사용해 ▲터치결제 ▲바코드 ▲큐알(QR) ▲근거리 무선 통신(NFC) 등의 방식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000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포인트는 매달 50회까지 추가 적립한다. 결제 후 3일 이내 '타임라인' 메뉴에서 동전 아이콘을 터치하면 받을 수 있다. 이어 이번달 세븐 일레븐의 '세븐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신한페이로 결제하면 50% 할인한다.

비씨카드의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일정이 모두 끝났다.

◆ 총 상금 980만원... 최종 입상 7팀 선정

비씨카드는 지난 7월 개최한 '렛츠비씨(Let's Be Creative)'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시상식에는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을 비롯해 최종 입상한 7팀 및 임

직원이 참석했다. 대상은 MZ세대 특화 상품투자 플랫폼 관련 아이디어를 기획한 서현주(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최윤아(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했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생 159명으로 구성된 75팀이 참가했다.

이상준 비씨카드 상무는 “이번 공모전은 청년세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지속 가능한 비씨카드 사이의 교집합을 발굴하면서도 참가 대학생이 실무 경험과 사업 기획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축제였다”고 말했다.

삼성카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맞춤 행사를 기획했다.

◆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에서 쇼핑하면 상품권

삼성카드는 명절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추석맞이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최대 40% 할인 혜택 또는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트레이더스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과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최대 40% 할인 및 최대 250만원의 상품권을 선물한다.

GS25에서는 매일 오전·오후 6~9시까지 타임세일 행사상품을 구매하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씨유(CU)에서는 행사상품 구매 고객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정산 기자

신용카드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쉬워진다

금감원·여신협, 비교공시 강화 금리 한눈에 보기 등 편의성 제고 업계 자율적인 금리경쟁 유도

〈개선된 금리 상세보기〉

구분	가격	900점 초과	801~900점	(중략)	401~500점	301~400점	300점 이하	평균	700점 이하 회원 평균
□□ 카드	기준가격	13.77	16.56		19.36	19.35	19.11	18.32	18.93
	조정금리	△0.18	△0.16	(중략)	△0.12	△0.10	-	△0.22	△0.10
	운영가격	13.59	16.40		19.24	19.25	19.11	18.10	18.83
	조달금리				4.38			4.38	4.38
△△ 카드	기준가격	15.40	16.49		19.41	19.51	18.75	18.49	19.09
	조정금리	△0.16	△0.18	(중략)	△0.10	△0.10	-	△0.10	△0.10
	운영가격	15.24	16.31		19.31	19.41	18.75	18.39	18.99
	조달금리				4.52			4.52	4.52

한다.

◆ 유용한 금리 정보 추가 제공

현행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인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또한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조달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 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 공시정보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20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한다.

여신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中, 배터리 우회로 찾기 '분주' 韓, 美 추가규제 우려 등 '긴장'

IRA 재정 1년

중업체, 합작사 설립 등 북미 공략
국내업체, 美 정부 추가행보 주목
"일종의 '불안한 동거'... 예측불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중국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진출을 위한 '우회로' 찾기에 분주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면서도 "미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는 반응도 공존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 귀시안은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미국에 20억 달러(약 2조67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장은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팩과 40GWh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으며, 일리노이주 만테노에 설립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는 귀시안에 5억36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향후 30년 동안 2억13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양산되는 생산 물량은 북미 자동차 회사에 납품될 예정이다.

또한 귀시안은 미시간주 빅 레피즈에도 24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

진하고 있다.

귀시안의 모회사는 중국 허페이시에 본사를 둔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 Tech)로 최대 주주는 독일 폭스바겐이다. 고션 하이테크는 배터리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8위 기업으로 북미 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다.

폭스바겐이 지난 2020년에 고션 하이테크의 지분 26.47%를 사들여 '중국 기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창업주인 리젠 회장이 여전히 경영권을 쥐고 있어 폭스바겐이 아무리 대주주라도 '중국 기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 리젠은 2대 주주로 지분 13.6%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고션 하이테크의 미국 공장 설립은 배터리 업계에서 중요한 문제다. 결국 IRA의 목적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배제하자는 취지가 있음에도 고션 하이테크의 사례가 기준이 되면 향후에도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고션 하이테크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자발적으로 관련 문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 귀시안의 빅 레피즈 지역 공장 부지 매입은 국방물자생산법(DP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고션 하이테크 외에도 중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진출은 합작사와 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중국 CATL의 경우는 지분 투자 없이 기술 이전 방식으로 포드 자동차와 35억달러(4조6700억원)를 들여 미국 미시간주에 합작사 형태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이브에너지(Eve Energy)는 미국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과 함께 미국에 26억4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를 투자해 21GWh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브에너지는 자사의 투자금과 지분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에 10%라고 알렸다. 이는 IRA 우회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당장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령 합작사를 만들어도 어떠한 요인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IRA와 상관없이 합작 결렬도 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불안한 동거'인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FEOC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민도 깊다는 의미"라며 "중국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전기차 수요가 많은 미국 시장을 중국 내수만 믿고 배제하기는 힘들다"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갤럭시 Z 플립 5, 中 황푸강 가로질러

삼성전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갤럭시 Z 플립 5'의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서 LED로 제작된 약 70m 길이의 '갤럭시 Z 플립5' 조형물 선박을 제작하고 선상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선박은 중국 상하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황푸강 약 20km 구간을 왕복 운행했으며, 야경을 즐기기 위해 모인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1일 중국에서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를 출시했으며, 전작 대비 높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애경케미칼, 난연·내식 수지 'FM 인증'

"글로벌 기준 화재 안전성 보장"

애경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가 국제 화재 안전성 인증인 'FM 인증'을 받았다.

12일 애경케미칼에 따르면 'FM 인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해보험회사인 미국의 FM Global사가 소방설비, 건축자재 등에 부여하는 화재 안전성 관련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인증이 완료된 후에도 매년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까다로운 인증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케미칼은 "화재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FM인증은 전세계 보험사들이 화재 안전도 평가 및 보험료 책정 시 FM인증 여부를 활용할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애경케미칼의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는 반도체 플랜트 클린룸에 적용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

P)의 소재로 활용된다. 클린룸은 청정 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정 특성상 작은 화재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난연·내식 성능을 보유한 FRP 소재를 활용해 덕트와 스크러버 등의 장비를 제작하도록 정해져 있다. FM인증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애경케미칼은 "해당 수지는 글로벌 기준의 화재 안전성은 물론이고 화학물질에 대한 내식성까지 보장할 수 있어 시장 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경케미칼 수지 하나로 내식 층과 보강층 모두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 소재가 갖고 있던 층 간 박리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애경케미칼은 2021년 11월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FM인증 평가를 한번에 통과한 바 있다. 애경케미칼은 추가적으로 난연 인증(ASTM E-84 CLASS A 등급)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英 방산 전시회 'DSEI'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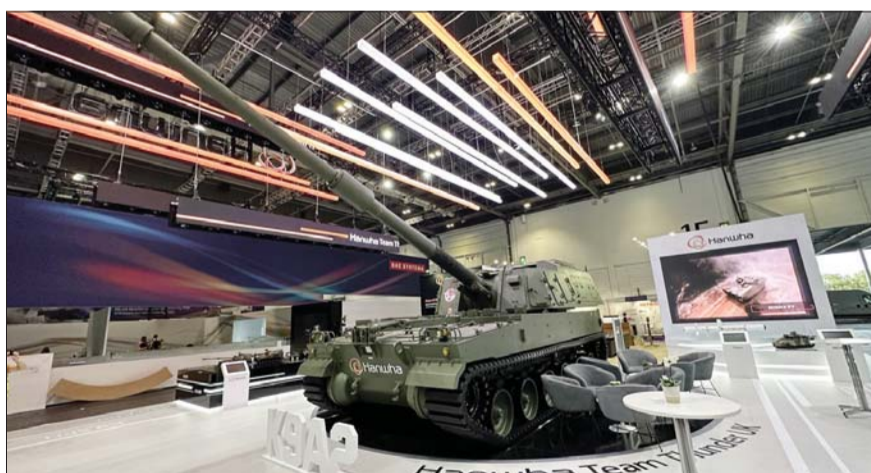
'K9A2' 패키지 공개... 英 MFP 사업 도전

현지 특화 수주 방침... '팀 썬더' 결성
레드백 장갑차 등 첨단 무기체계 제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신행 K9 자주포인 'K9A2'로 영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호주에서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폴란드에서의 유무인차량(UGV) 차세대 협력에 이어 영국 시장을 겨냥한 첨단 무기체계를 제시해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DSEI)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5㎡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자동화포탑, 고무케도를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K9A2 자주포를 'K10 탄약운반차', 모듈화 장약 'MCS'와 함께 '자주포 패키지'로 공개한다.

이번에 전시된 K9A2 모델은 탄약 및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스틸 케도 대신 복합소재의 고무 케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이 줄어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9월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전시회 DSEI에 차려진 한화 부스 중앙에 K9A2 신형 자주포가 전시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영국의 MFP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MFP사업은 영국이 주력 자주포인 AS90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획득하는 약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팀 썬더'를 결성해 현지 특화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원하는 영국을 위한 제품군도 제

시한다. K9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지대지 유도탄인 천검, 천무 다련장로켓,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한화페이저의 전자식 위성통신안테나까지 공개해 육해공 분야의 솔루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방산 솔루션을 제시해 영국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유진영의 안보에 기여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수습기자 hyeon@

고려아연, 그린수소 사업 로드맵 공개

2023 H2 MEET

생산·저장·운송 등 사업 전반 소개

고려아연이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2023 H2 Mee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업 현황, 그린수소 밸류체인 등을 포함한 총체적 로드맵을 공개한다.

고려아연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2023 H2 Meet'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2023 H2 Meet'에서 수소사업 현황을 담은 부스를 기획했다. 부스방문자는 배치된 디오라마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그린수소 밸류체인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확

인할 수 있다. 또 아크에너지 등 호주 현지 계열사를 통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의 저장과 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사업의 로드맵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려아연의 대표 CSR 활동 중 하나인 '이음의 숲' 캠페인을 소개하는 내용도 마련돼 있다. 캠페인과 연계된 이벤트 공간이 조성돼 친환경 미래를 위한 숲 조성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호주자회사 SMC 제련소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호주 최대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맨킨타이어'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등 재생에너지 자산과 사업영역을 확보했다.

/차현정 수습기자



고려아연 2023 H2 MEET 부스 조감도

/고려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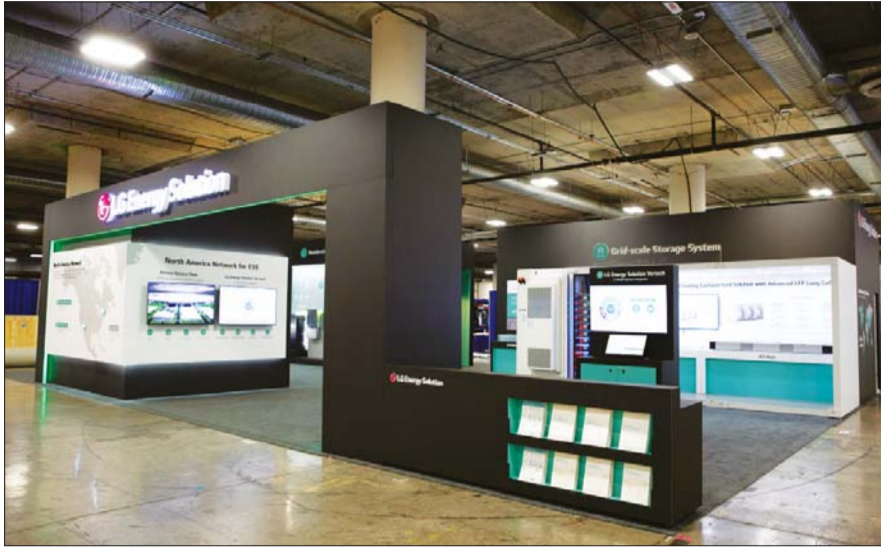
LG엔솔, 배터리 기술력 앞세워 美 ESS 시장 공략 '본격화'

美 신재생 ESS 전시회 'RE+2023' ESS 사업부문 매출 3배 성장 목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나갈 계획"

LG에너지솔루션이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 배터리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ESS 시장을 노린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신재생 ESS 전시회인 'RE+2023'에 참가해 ESS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4대 핵심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ESS 시장은 각국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특히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등으로 이 같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전문 조사기관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RE+2023' 전시부스,

LG에너지솔루션

북미 ESS 시장은 2022년 12GWh에서 2030년 103GWh까지 약 1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 대규모 생산공장 운영 ▲현지 공급망 체계 강화 ▲차별화된 LFP 배터리 기술력 ▲SI(시스템 통합) 역량 등을 4대 핵

심 사업전략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최초의 대규모 ESS 전용 배터리 생산공장인 애리조나 공장을 통해 미국 현지 고객 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총 3조 원을 투자해 16GWh 규모로 건설되는 이 공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생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공장은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셀 생산부터 팩, 컨테이너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 및 부품의 현지 공급망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고객사들이 IRA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LFP 배터리 기술력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도 넓혀 나간다. 또한 미국 내 유일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추게 될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들의 요구에 즉각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SS SI 역량도 강화한다. ESS 공급부터, 사업 기획, 설계, 설치, 유지, 보수 등 ESS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통

합 솔루션 사업역량을 강화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유지·보수까지 가능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사업부장 장승세 전무는 "검증된 생산능력과 차별화된 ESS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5년 내 ESS 사업부문의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며 "특히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올해 초 3조 원 규모의 애리조나 신규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를 결정했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4.76메가와트시(MWh) 용량의 LFP 셀을 적용한 전력망용 '모듈러 타입' 수냉식 컨테이너 제품 등을 선보였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기반의 주택용 ESS 제품 '엔블럭(enblock) S'도 소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성장방향 전략 논의

'2023 포스코포럼' 개최

그룹사 전 임원 참석 지속성장 토론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만들 것"

포스코그룹이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2023 포스코포럼'을 오는 14일까지 송도 포스코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한다.

1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올해로 5회차인 포스코포럼은 그룹사 전 임원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진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다. 올해는 '리얼밸류 경영, 세상에 가치를 더합니다'라는 주제로 7대 핵심사업(철강·수소·이차전지소재·리튬/니켈·에너지·건설·식량)별 전략과 성장 방향을 논의한다.

최정우 회장은 "포럼을 통해 공유된 리얼밸류 스토리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그룹의 성장 비전을 알리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9월12일 송도 포스코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3 포스코포럼'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라즈 라트나카 듀폰 전략 담당 부사장과 대담하고 있다.

첫날 기조강연은 라즈라트나카 듀폰 전략담당 부사장이 나서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과 기업가치 증대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또 첫날 오후부터 둘째 날까지는 그룹 경영진이 직접 포스코그룹의 7대 핵심사업별 리얼밸류 스토리를 발표하고, 외부 패널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리얼밸류 실현 방안과 미래 전략 방향을 심층적인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라스 키사우 BA

SF 탄소중립담당 사장의 초청 강연을 통해 체계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 사례를 학습한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3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리얼밸류 경영의 구조적 토대를 갖췄고, 리얼밸류 경영을 통해 그룹 시가총액이 2018년 7월 27일 35조2000억원에서 현재(9월11일 기준) 105조 규모로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T

파트너사 납품대금

1370억 조기 지급

KT는 12일 KT알파, KT커머스, KT스튜디오지니, 스마트로, KTDS, 브이피, KT엔지니어링, 이니텍, KT is 등 9개 그룹사와 137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KT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해왔다.

/구남영 기자

네오위즈, 콘솔 트리플 'P의 거짓' 출시 임박

지난 7일 무기 쇼케이스 영상 공개

국내 최대 콘솔 게임 기대작인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의 정식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네오위즈 산하의 라운드 8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P의 거짓'은 이탈리아의 유명 동화 '피노키오'를 잔혹 동화로 재해석한 소울라이크 싱글 플레이어 액션 RPG다.

P의 거짓은 오는 19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PS)4와 PS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S, PC 스팀으로 정식 출시를

앞왔다.

지난 7일에는 무기 쇼케이스 영상을 공개하며 유저들의 이목을 끌었다. 네오위즈 공식 유튜브 채널(https://youtu.be/YO4sAk0fMcg)을 통해 공개된 이번 무기 쇼케이스 영상은 7분 40초 가량의 분량으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무기의 손잡이와 날을 각각 분리 및 조립하여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P의 거짓만의 독특한 '무기 조합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장애인에게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

고령자 등 음성 안내 제공 서비스

SK텔레콤은 9월부터 시각 장애인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이용 요금을 말로 안내하는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는 시각장

해인이나 고령자에게 기존 점자 요금 안내서 등과 더불어 AI 콜로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AI 상담사가 이용자에게 전화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총 요금과 통신요금, 휴대폰할부금, 부가서비스 요금 등 상세 내역을 안내한다. 전화 기반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로 통화료는 무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네이버, 이용자 멤버십 혜택 강화 '박차'

호텔신라와 서비스 연동 협약

네이버가 호텔신라와 상호 서비스 연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용자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호텔신라는 ▲AI·클라우드 기술 기반 호텔·면세 사업의 디지털 전환 ▲멤버십 제휴를 통한 온오프라인 고객 혜택 확장 ▲호텔·면세 서비스 사용자 편의 향상 등을 목표로 전략적 사업 제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은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20만



한재영 네이버 사업개발센터 총괄(왼쪽)과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원 이상 구매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최대 8%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넥슨 팝업스토어, 주말 예약 1분만에 매진

넥슨은 '삼성 강남'에서 오는 22일까지 운영되는 '메이플스토리'의 팝업스토어 '몬스터하우스'의 주말 사전예약이 1분 만에 매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첫 오픈 후 이틀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 '몬스터하우스'는 도트 감성으로 재탄생한 감성적인 배경과 소품이 마련된 포토존, 다양한 공식 굿즈 및 컬래버 제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오늘(11일)부터

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넥슨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삼성전자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인 '삼성 강남' 4층 오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고, '메이플스토리'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는 브랜드 협업 공간인 오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되는 첫 컬래버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최빛나 기자



탤런트 이 경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쓱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3배 수익 ETF' 찾는 서학불개미... 엔비디아·테슬라 '줍줍'

해외주식 Click

여전히 엔비디아 선호도 높아
대형 기술주 순매수세 이어져
'TD YL TSL IN ETF'까지 순위권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도 기술주 하락에 배팅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미국 장기채 등에 3배 차입투자(레버리지) 선호도 돌아오면서 불개미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9월 5일~11일)에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4951만달러)와 테슬라(2504만달러)를 가장 많이 사들이며 꾸준한 지지 심리를 보였다. 다만 상위 1, 2위에 투자금이 몰렸던 종목 풀림은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선호가 유지된 가운데, ICE 반도체 하루 성과를 3배 역추종하는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컨덕터 베퍼 3배 상장지수

펀드(ETF)'(SOXS)를 그다음으로 많이 사들이 주목된다. 더불어 나스닥 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역추종하는 '프로세서즈 울트라프로 숏 ETF'(SQQQ)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술주에 대한 비판적인 투자 심리가 드러났다. 나스닥100이란 미국 증시 상장사 중 핵심 기술주 100개를 모아 만든 지수다.

이렇듯 기술주 하락에 배팅하면서도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에 대한 순매수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상충된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말고도 테슬라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방식의 고배당 상품 'TD YL TSL IN ETF'까지 순위권에 들었다.

또한, SOXS와 SQQQ처럼 3배 배팅 ETF가 순위권에 포진하면서 불개미의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초부터 1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디렉시온 테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불 3X ETF'(TMF)도 3배 추종 레버리지 상품이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인하 시 더 큰 수익이 기대

되는 장기채 상품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전투자 심리가 작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만큼 손실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TM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22.97%로 서학개미들의 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이번 주에도 2256만달러(약 300억원)를 사들이면서 4위에 진입했다.

일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도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JPY) 헷지 ETF'로 2068만달러(약 274억원)를 순매수하면서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해당 상품은 20년이상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엔화 환헤지 ETF다. 엔저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엔화 강세시 환차익까지 노리겠다는 이중 전략이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월배당 미국 부동산 리츠 리얼리티 인컴 ▲HITEK GLOBAL INC 등을 순매수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뉴스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9.1억달러 팔아

중 경기 둔화 등 우려 커진 영향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9억 1000만달러를 팔아치웠다.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채권도 큰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고, 미국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7억 9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7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보다

빠져나간 자금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9억 1000만달러 빠져나갔다. 지난 8월말 원·달러 환율(1321.8원)을 적용하면 약 1조2028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7억90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규모 채권이 만기도래하고, 채권금리 등의 거래 유인이 낮아진 영향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부산·광주·대전 등 후끈 달아오른 '청약'

두 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마감
분양가 상승우려 등 적체현상

아파트 청약열기가 서울, 수도권에서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로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감소, 분양가 상승 등 시장 불안요인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산, 광주, 대전 분양시장에선 두 자릿수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한데 이어 분양가 상승 우려로 선별적인 청약 대기 수요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의 청약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대전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평균 68.67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대연 다이아몬드' 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는 '상무센트럴자이'와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가 각각 11.93대 1, 1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은 7월 현재 부산의 경우 2258가구로 전월(3107가구)보다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투시도.

849가구 줄었다. 대전도 1458가구로 전월(1729가구)보다 271가구 줄었다. 다만 광주는 698가구로 전월(643가구)보다 55가구 늘었다.

지방 광역시의 집값도 강세다. 대전 유성구 원신동 '인스빌리베라' 130㎡는 지난 7월 8억7000만원에서 8월 10억8000만원에 거래돼 한달새 2억원 이상 오른 사례도 나타났다. 대전 서구 둔산동 '한마루' 101㎡는 8월 25일에 7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9월 1일에 1억원이 된 8억5000만원이 거래되는 일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은 이달 부산 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59~114㎡, 총 1384가구 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푸르지오 씨밋'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101동 최고층에 들어서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제일건설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첨단 제일풍경채' 59~84㎡ 총 1845가구 중 116~184㎡ 58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에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660가구 중 528가구를 분양하고 대영건설은 하반기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서 주상복합 '대전 유천 1구역 지주택'을 선보인다. 아파트 718가구, 오피스텔 32실 규모다.

/이규성 기자 peace@

"韓 대표 참여형 지적재산 플랫폼 도약"

IPO 간담회

코스닥 시장 출사표 재도전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도전에 실패한 이후 9개월만이다. 지난 IPO 때 기업고객(B2B)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기자 간담회에서 서영택 밀리의 서재 대표는 "독보적인 콘텐츠 보유량과 다양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으로 회사가 성장했다"며 "다양한 독서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국내 대표 참여형 지적재산(IP)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2016년 설립된 밀리의 서재는 이듬해 국내 최초로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 선보이며 출판업계에서 주목받



서영택 밀리의서재 대표이사.

은 독서 플랫폼 기업이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누적 구독자는 640만명을 확보했고, 제휴 출판사는 1900곳을 돌파했다. 2021년 9월, 지니뮤직에 인수됨에 따라 KT그룹에 편입돼 풍부한 독서 콘텐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에는 매출액 458억원과 영업이익 42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260억원과 영업이익 5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19%를 달성했다.

/신하은 기자

GS건설, 업계 첫 자체 개발 앱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 노력

GS건설이 업계 최초로 자체 앱으로 홈네트워크 건물 AAA등급을 인증받았다.

GS건설은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을 동시에 인증받

았다고 12일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인증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별로 받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인증한다.

가장 높은 등급인 특등급, AAA등급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배선 설비

▲기기 설치 ▲배관 및 기타 설비 ▲IoT 확장성 등의 100여개가 넘는 기준들을 만족해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과 연계해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금투협, 부산 등 차세대 금융인력 마련 행사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대회'

금융투자협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산 금융중심지

를 이끌어갈 차세대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학생 1~4명이 팀을 구성해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심사해 평가한다. 공정성을 위해 모든 심사는 블라인드로 진행된다./원관희 기자 wkh@

中企 CEO 400명, 제주서 ‘동반성장·제값받기’ 한목소리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 개막
이명박, 사면 이후 첫 공식연설
김기문 회장 “尹 정부 출범 이후
연동제 시행... 현안 해결되는 중”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대화를 나누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과 이영 중기부 장관이 악수를 하며 웃고 있다. /중기중앙회

400여 명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제주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법으로 제시된 동반성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10년 당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화두를 던졌다.

2023년 신년 특별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겸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이후 사실상 첫 외부 공식 연설을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포럼 개최사에서 “이 대통령은 재임할 때 중소기업과 가장 많이 만나서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해주셨다”면서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그런 추억을 아직도 잘 기억해 가장 만나고 싶어했던 대통령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로 10여분 정도를 할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시절 중소기업인들이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14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법이 통과, 내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물업계와 레미콘업계는 길거리로 나가 납품대가 현실화를 외치며 총궐기 대회를 하며 사회에 호소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계가 주도했던 총궐기대회는 사장님들이 처음으로 머리에 붉은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던 최초의 외침으로 기억한다”며 “그만큼 사회에 주는 메시지와 울림도 컸다”고 전했다.

당시 주물·레미콘업계를 각각 이끌며 납품대가 제값받기 선봉에 섰던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재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업계에서 원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7년 3월 중기중앙회장에 첫 취임한 김기문 회장은 납품대가 연동제를 최대 숙원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김

회장은 14년이 지난 뒤 네번째 중기중앙회장을 하면서 법제화 이후 제도 시행이란 결실을 직접 보게 됐다.

특히 김 회장이 당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실에서 호출이와 “다른 건 몰라도 납품대가 연동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직언한 것이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날 리더스포럼에서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말한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가 연동제 법제화는 ‘시장 원칙을 깬다’,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

로 반대가 굉장히 컸다”면서 “중기부가 국회를 뛰어다니는 동안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인들까지 ‘원팀’이 돼 법제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그동안 중기부가 펼쳐온 주요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환경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디지털화 및 제조혁신, 규제 혁파 등 핵심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있다”며 “아울러 규제개혁 성과로써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외국인력 쿼터 및 고용 확대 등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반영됐으며 현 경제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 개막식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 서귀포에 있는 천사의집과 제남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계가 후원한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소형상품 전담 ‘MP허브’ 가동

안성에 1.2만㎡, 축구장 2개 규모
이천이어 두번째... 일 200만개 처리
20번 반복작업 한번에 작업 가능



CJ대한통운 안성 MP허브터미널에서 박스가 이동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경기 안성 MP허브터미널을 가동하고 택배 분야 1위 굳히기에 나섰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경쟁사를 압도해 시장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다.

CJ대한통운은 안성에 소형 상품 자동 분류 시스템인 MP(멀티 포인트)를 도입한 ‘MP허브터미널’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이천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선 안성 MP허브터미널의 총 면적은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2000㎡로, 하루 200만개 소형 상품을 처리할 수 있다.

MP는 전국에서 모인 소형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자동화 설비다. 이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소형 상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이 2019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고객들의 주문 상품이 소규모화하면서 소형 상품의 작업 생산성은 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실제 소형 상품(가로×세로×높이 합이 100cm 이하)은 CJ대한통운 전체 물량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MP허브터미널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효율성이다. 서브터미널에 설치한 MP를 통해 목적지가 같은 지역의 소형 상품을 행낭 단위(20~25개)로 묶어 MP허브터미널로 보낸 후, 분류 작업을 거쳐 최종 배송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다시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이전에는 소형 상품 20개를 처리하려면 개별적으로 상차해 허브터미널로 발송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20번 반복해

야했지만, MP허브터미널에서는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상하차작업의 편의성과 생산성도 높아졌다.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크기 구분 없이 밀려오는 택배 상자들을 육안으로 식별해야 했다. MP 도입으로 소형 상품 외 나머지 규격의 상품들만 직접 상하차하게 됨에 따라 작업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기존에 설치한 자동 분류기인 ‘휠소터(Wheel Sorter)’와 MP를 동시에 운영해 작업 시간이 줄어들고 분류 정확도가 향상된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멸균팩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포장재공제조합·12개 기업과 협약

한솔제지가 멸균팩 종이를 식음료 생활용품 포장재로 재활용하며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솔제지를 비롯 국내 주요 기업들이 뜻을 모아 이뤄지게 됐다.

12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포장재공제조합) 및 국내 12개 식음료 생활용품 제조업체와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멸균팩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및 두유 등과 같은 유제품에 주로 사용되

는 종이 패키징의 일종으로, 이번 협약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멸균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솔제지를 비롯 국내 주요 기업들이 뜻을 모아 이뤄지게 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2개사는 ▲남양유업 ▲대상웰라이프 ▲동원F&B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육식품 ▲서울F&B ▲서울우유협동조합 ▲LG생활건강 ▲이룸 ▲정식품이다. /김승호 기자

거주 외국인과 中企제품 해외판로 개척

중진공, 본 글로벌 셀러양성 과정 성료
온라인 쇼핑몰 전문가 양성·제품 판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로 확대에 나섰다.

중진공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실무 온·오프라인 교육인 ‘본글로벌(Born Global) 셀러양성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셀러양성 과정은 서울 E-비즈니스

원센터에서 7주간 현장 대면수업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한국과 현지 문화 모두에 능통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과 매칭해 자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칭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종합시공사와 사업비전 공유

에이치클래스에 상패 수여

한샘이 ‘종합시공사 비전 선포 컨퍼런스’를 열고 시공 품질을 더욱 강화한다.

12일 한샘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 상암사옥에서 종합시공사와 한샘서비스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샘 종합시공사와 사업 비전을 공유하고 우수한 종합시공사를 선정해 ‘에이치클래스(H-Class)’ 1기 상패를 수여했다.

행사는 한샘이 종합시공사와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리하우스 직시공 패키지의 시공 품질 차별화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샘 시공전문자회사 한샘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종합시공사를 통한 시공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하나의 아이템을 전문 시공하는 ‘단과(單科)시공사’ 체계에서 ‘종합시공사’ 중심의 전략



한샘 종합시공사 비전 선포 컨퍼런스에서 (왼쪽부터)한샘서비스 이종진 대표, 한샘 김유진 대표, 종합시공사 HW테크 김중희 사장, 한샘 서비스1 권동호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도입한 결과 지금까지 전국에서 80여개 종합시공사를 육성했다.

‘종합시공사’는 가구와 건재뿐 아니라 철거·전기·목공·도장·도배 등 기본공사까지 인테리어 전 공정에 걸쳐 종합 시공 능력을 갖춘 한샘의 시공협력사다. ‘단과시공사’는 부엌, 욕실, 창호, 바닥재 등 각각의 아이템별 공정을 책임진다. /김승호 기자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산업인력공, 기관경고·22명 징계

고용부,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책임자 비위 따라 중·경징계 등 조치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통보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건물. /뉴시스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22명 징계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산업기사 등 실기시험(61개 부문)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명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를 포함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5월22일~7월19일 감사

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답안지 파기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 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빠를 깨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

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직후 공단 측은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긴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 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장애인고용공, 장애인 체육선수 선발 확대

농어촌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3자 협약 체결... 채용 방식 다변화

공단은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체육선수 50명을 채용하게 된다”며 “육상·축구·탁구 등 16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12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여건에서 전문체육인으로서의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포이들을 고용한 사업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은 지역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및 고용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2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공공기관 중 해당 부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채용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조항현 공단 조항현 이사장은 “11월 3일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사우디서 5000만弗 규모 성과

서틀경제협력단, 8건 협약 체결 스마트팜·식품·플랜트 기자재 분야

물(사인머스켓), 가공식품(홍삼캔디, 라면) 등이 전시돼 상담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케이-푸드를 직접 시식해본 사우디 업체들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보내 향후 중동지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중동지역과의 농업 및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파견한 제3차 서틀경제협력단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의 행사를 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분야 등 모두 8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훈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관계자들을 비롯 국내 기업 26개사, 사우디 기업 60여개사가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서틀경제협력단은 스마트팜, 식품, 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수출기업들로 구성됐고 사우디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사우디 투자부는 직접 자국 진출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고, 지난 6월 사우디 스마트팜 복합단지 구축사업을 수주한 우리 기업 드림팜이 진출 시 애로 사항 및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는 발표 시간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열린 기업 간 상담회와 농식품 시식회 등에서 한국 스마트농업과 식품에 대한 사우디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훈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동의 스마트팜·식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스마트팜, 식품 등 케이-푸드 플러스분야가 신(新)중동분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개최한 상담회에서는 스마트팜(12개사)·식품(4)·플랜트기자재(14)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 30개사와 사우디 측 업체 30여개사 간 총 270여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총 300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됐다.

한 차관은 12일에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알 무사이티 차관과 회담을 갖고, 스마트농업 등과 관련한 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상담회장 밖에 전시된 한국 농식품 시식회 부스에서는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스테비아도마토), 한국수출농산

/차상근 기자 skc8472@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 이월물량 확대 공청회

이월 제한, 배출권가격 변동성 ↑ 탄소감축 투자요인 저해 지적

받아 왔다. 변경안은 ‘이월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환경부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중소기업디엠씨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변경안에는 또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도 들어 있다.

12일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간 온실가스배출권의 이월 제한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산업계와 발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초순수 플랜트 등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

환경산업기술원과 공개

설계기술로 완성한 초순수 실증 설비(플랜트) 기술(한성크린텍(주))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그간 해외기업이 독점해 온 초순수 생산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83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2일 ‘2023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원·토양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13~18% 줄이면서 강도 및 가스(탄산) 차단성을 기존 페트병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페트병 생산 기술(삼양패키징)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켰으므로 기존 대비 약 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해 공개해 왔다. 또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는 효과도 있다.

올해의 우수성과 20선 기술은 물관리와 자원·토양, 생태·보전, 기후·대기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국민 5000여 명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 참여 누리집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다.

생태·보전 분야에서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실시간 감축하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뽑혔다. 이 기술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휴대용 장비로 공기 중 유해인자를 측정해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대기 분야는 동북아 규모(국내 포함)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원인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건국대)이 선정됐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감축, 이동,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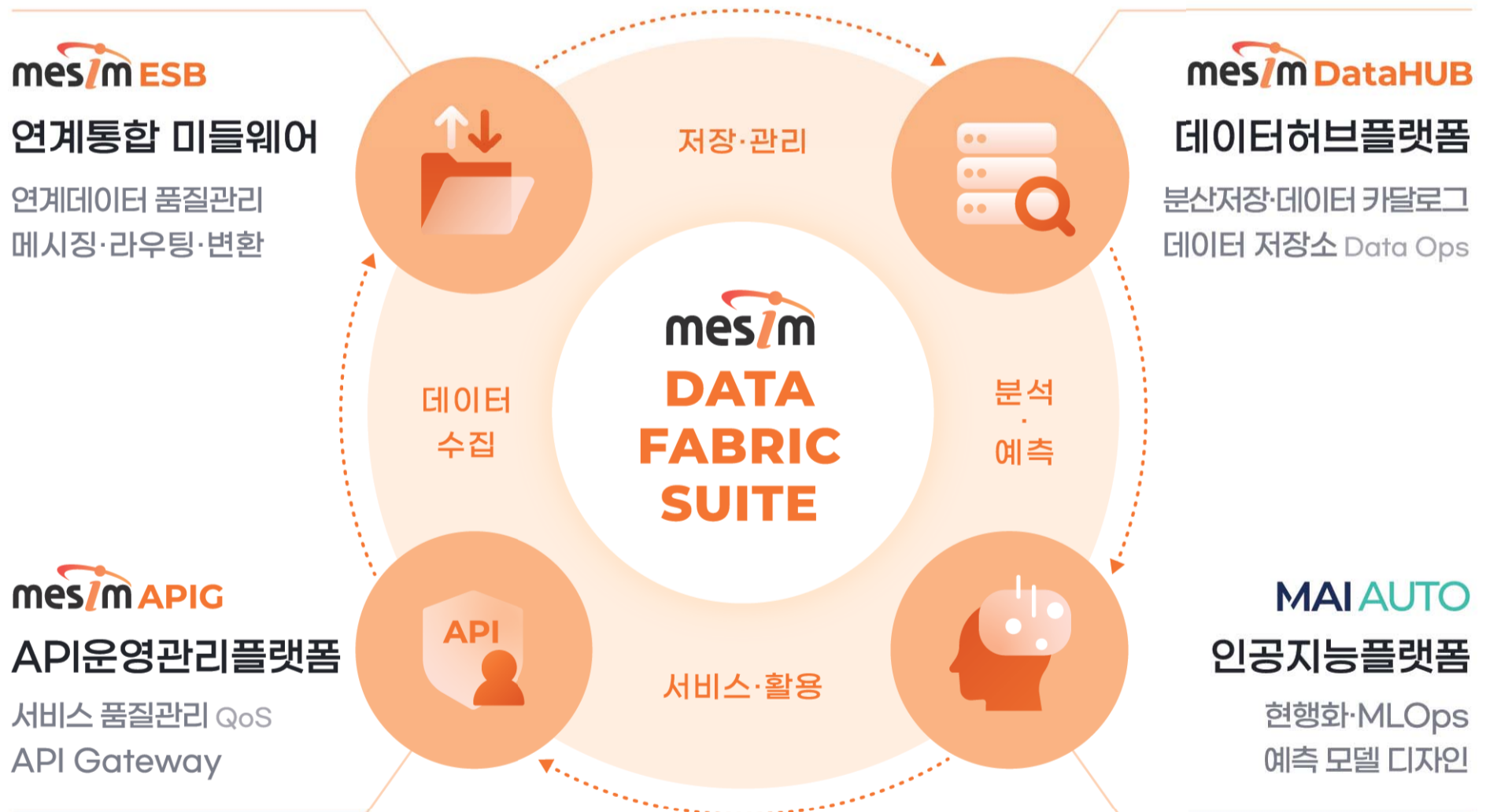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본사 0664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메타빌드빌딩 연구소 0670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연구소
T 02.598.3327~8, 3340 F 02.598.3329 E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위해 예비비 14억 편성

2년간 실질적 주거안정 마련
전세대출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2025년 5월까지 지속 추진 방침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해 지원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



부산시청

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부산시가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같은 달에 이사와, 9월에 이주비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담양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담양군 담양읍 삼만지구로, 2000년 설립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75, 도비 22.5, 군비 52.5)을 투입해 주요 유휴시설(계사, 퇴비사, 관리동, 저온 창고 등) 정비 및 재생 사업(스마트 원예 체험실습장, 공공육묘장,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AfDB 총재와 교류·협력 논의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시청에서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와 만나 부산시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데시나 총재는 제7차 한·아프리카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참석을 계기로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서 박형준 시장과 만났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아데시나 총재에게 금융 중심지인 '부산 금융'의 위상과 강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 부산의 매력을 설명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전남도

마한역사문화센터 설계비 확보

전라남도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의 중심이 될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2024년 기본설계비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문화재청이 공모를 통해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영암 나불도를 선정함에 이어 2024년 기본설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총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아카이브와 교육·전시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마한 복원과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핵심 지휘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영천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9월 11일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와 능력검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에서 주최하는 <제12회 말산업 국가자격 재할승마지도사/말조련사 1차 실기시험>과 한국마사회 주관·주최의 <제14회 승마지도사 실기시험>을 운주승마조련센터에서 실시했다.

말산업 국가자격 분야는 말 조련사, 장제사, 재할승마지도사이며, 만 17세 이상인 자 중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해남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총 사업비 136억 확보하며 속도

해남읍·삼산 구림 등 실시
송지면도 함께 신규 추진

해남군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해남읍 등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8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6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남읍과 삼산 구림, 삼산 매정, 북평 영전, 북평 신기 12.1km에 대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실시된다.

아파트와 거주인구가 늘면서 하수유입 용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을 비롯해 처리장 유입수질이 낮아 정비가 시급한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송지면 미야·영평 마을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영평마을 일대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근 바다 양식장과 갯벌,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양생태계 오염이 우려되어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영평마을 일원에는 총 사업비 34억여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7km와 100여 가구에 대한 배수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해남군은 농어촌 지역간 균형발전과 취약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 시설 신설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17건의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을 포함해 총사업비 1187억 원(국비 751억 원)을 확보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 글로벌 관광도시 향해 도약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경주시가 2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9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남영 시장을 비롯해 동국대, 신경주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관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진흥 5개년 계획수립'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관광진흥 계획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관광행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2024~2028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지역관광의 청사진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 내용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행태 ▲경주만의 역사문화 자원 활용 ▲관광시장 재활성화 위한 전략적 수립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관광 발전 구조 계획 등을 수립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주다움을 새롭게 구현하고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9대 전략 키워드,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전략 등이 제안됐다. 또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에 따른 복합전시(MICE) 산업을 비롯해 야간 시티투어, 봉황대뮤지스퀘어 등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등이 건의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국내 5번째 지정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인정 받았다. 중국의 장가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8개국 195개 지질공원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11일 심택섭 고창군수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신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인증서를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신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내 5번째 지질공원이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에는 고창군 13개, 부안군 19개소 등 총 32개소의 지질 명소가 포함됐다. 고창군에선 선운산의 천마봉, 마애불, 진흥굴, 병바위, 소오산 용암담, 송계리 시생대 편암, 명매기샘, 고인돌군, 명사십리해변, 구시포 가막도, 쉼니아, 대죽도, 고창갯벌이 지정됐다.

이번 총회장에서는 전세계 지질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지질공원 운영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교류 등을 논의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진도군, 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 호응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진도군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살면서 일자리와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들과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3개월 동안 군에 거주하며 영농 일자리 체험 등

다양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세방낙조, 윤림산방 등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총 9명의 참가자들은 오는 10월말까지 지산면의 길은푸르미 체험관에서 무료 숙박과 매일 30만원의 연수비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촌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휴게소·야구장 등 푸드코트 활기... 컨세션 사업 확장 속도

(식음료 위탁 운영업)

CJ프레시웨이 시설 서비스 개편 2분기 매출 13% 증가한 544억
풀무원 전국에 23개 휴게소 운영 매출 2045억, 전년비 22% 늘어
인천공항 식음사업권 입찰 나서 롯데GRS·아워홈·풀무원 등 참여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아워홈

지난해 리오프닝과 맞물려 식음료 위탁 운영업인 컨세션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단체급식·식자재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컨세션 사업이란 고속도로 휴게소나 다중 이용 시설에서 다수의 식음료 브랜드를 유치해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팬데믹 기간 매출이 크게 위축됐지만, 휴가철 여행·캠핑족 등 주요 거점인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반기 괄목적인 성과를 냈다.

실제로 CJ프레시웨이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레저 및 컨세션 사업에서만 지난해 동기 대비 13.1% 상승한 5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단체급식 사업 매출액의 30%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CJ프레시웨이는 야구장과 테마파크,

크, 리조트 등 전국 컨세션 시설 서비스를 개편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전 기차 운전자가 증가한 것에 착안해 휴게소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확충했고, 워터파크와 야구장 내 편의 시설을 늘렸다.

풀무원도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힘입어 2분기 컨세션 사업 매출이 20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83억원보다 21.5% 늘었다.

현재 풀무원은 경기 시흥하늘휴게소(양방향), 별내휴게소 등 전국에 23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휴게소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커피전문점과 로봇 바리스타를 활용한 무인 커피 전문

점을 운영해 인건비를 줄여 수익성을 개선했다.

업계 관계자는 "컨세션 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특수상권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한 계열사 브랜드를 입점시켜 출점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식음료 사업권 입찰에도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행객이 증가하고 공항 영업환경이 정상화된만큼 입찰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

널(T2) 식음 복합 사업권 운영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T1·T2 36개 매장 약 4500평 규모를 3개 사업권으로 나눠 발표했다. 다음달 24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는 11월 초에 선정된다. 선정되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맡게 된다.

이 사업에는 롯데GRS, 아워홈, 풀무원 등 주요 F&B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J푸드빌은 이번 공항 사업권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특히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7% 증가한 롯데GRS는 컨세션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오는 2027년 개장 예정인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휴게 시설 컨소시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아워홈은 지난 8일 IFC몰 지하 3층에 프리미엄 푸드홀 브랜드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을 론칭했으며 컨세션 사업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 F&B 시장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선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풀무원 출출박스 로봇셰프 론칭

풀무원이 스마트 무인 즉석조리 자판기 '출출박스 로봇셰프'를 론칭하며 무인 판매 플랫폼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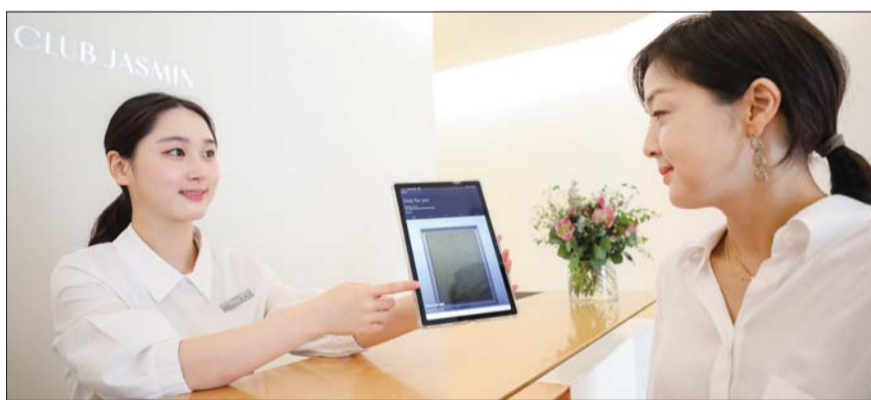
풀무원은 이번 '출출박스 로봇셰프' 론칭을 통해 무인 판매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있던 '출출박스'의 상온·냉장·냉동 간편식에서 이어 국물이 있는 면밥 요리를 즉석에서 조리하는 '원볼밀(One Bowl Meal)' 제품까지 확대하고 무인 판매 플랫폼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출출박스 로봇셰프'는 냉동 상태의 요리 제품을 주문 즉시 로봇이 조리하여 약 90초만에 완성하는 스마트 기기다. 기기 규격은 높이 1.9m 폭 1.0m로, 영상을 송출하는 27인치 스크린, 터치로 동작되는 15.6인치 메뉴 선택 화면, 제품이 완성되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조리 챔버, 수저함 등으로 구성됐다.

/신선진 기자

현대백, VIP고객 전용 온라인몰 'RSVP' 오픈

'더현대닷컴'서 VIP만 입장 가능 330여개 브랜드 특화상품 마련 음악·미술 등 하이엔드 상품 구성



현대백화점 직원이 고객에게 VIP 고객 전용 폐쇄형 온라인몰 'RSVP'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VIP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온라인몰을 선보인다. VIP 전용 단독 상품,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제공받는 VIP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 VIP 고객만 입장이 가능한 폐쇄형 온라인몰 'RSVP'를 공식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RSVP'는 프랑스어로 'Repondez S'il Vous Plait(초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의 약자로, 현대백화점이 우수고객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공간에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RSVP는 현대백화점 VIP 멤버십(자스민·

세이지·그린·클럽YP) 고객이 더현대닷컴에 회원가입 후 더현대닷컴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RSVP 전용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먼저, VIP 고객에만 단독으로 노출되는 330여개 브랜드의 'VIP 전용 특화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고객군을 세분화해 추천 브랜드와 노출 상품을 다르게 제안하는 등 고객군별 선별된

상품을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RSVP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음악, 미술, 리빙 등 각 카테고리별 하이엔드급 상품을 구성했다.

대표 단독 상품으로는 세계 3대 하이엔드 오디오 제조사 '포칼'의 그랜드 유토피아 스피커, 세계적인 피아노 제조사 '스타인웨이앤스' 그랜드 피아노,

세계적인 피규어 브랜드 '베어브릭' 한정판 피규어 컬렉션, 세계 3대 지구본 제조사 '조폴리' 지구본 등이 있다.

또한, 여행·문화체험 등 콘텐츠를 결합한 80여개 브랜드의 온·오프라인 연계 프리미엄 상품도 선보인다. 1억원 이상 고가의 블루칩 작품에 대한 도슨트 투어를 진행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하이엔드 오디오 상품 청음 프로그램 등 기존에 상품 나열식 온라인몰이 아닌 고객들에게 경험의 영역까지 확대한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은 RSVP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으로 기존 백화점 매장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요트, 고급 이동형 주택 '캐빈' 등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관련 상품도 함께 제안한다. 블루칩 예술 컬렉션으로는 세계 미술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장들의 원화 작품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

티몬 '황금년 동행축제' 24개 소상공인 집중지원

티몬이 '2023 황금년 동행축제'를 기념하는 특가 라이브방송 릴레이를 9월 내내 이어가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티몬은 지난달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황금년 동행축제 기념 특별 라이브방송을 펼치며 24개사의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 지원사격에 나선다.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별 기획관, 라이브방송 전용 마케팅, 노출광고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해 소상공인들의 판매 활성화를 돕는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음성군·음성농협과 MOU

홈플러스는 12일 홈플러스본사에서 음성군청, 음성농협협동조합과 함께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홈플러스의 음성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음성군, 음성농협과 홈플러스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체결됐다.

음성군청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자금 및 행정지원을 펼치고, 음성농협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도지원과 적기 공급을, 홈플러스는 음성군 농산물의 적극 판매와 농가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한 노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최빛나 기자

SSG닷컴, 지난달 음향·모바일 매출 255% ↑ CU, PB '득템 시리즈' 누적판매 2000만개

블루투스 스피커 매출 특히 높아

SSG닷컴은 지난 8월 한 달간 음향, 모바일 카테고리 상품 매출이 255% 신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매출이 특히 높았다. 돔 스타일 디자인에 물결 문양의 엠베인트 라이트가 돋보이는 '하만카돈' 오라 스튜디오 시리즈 등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글라스와 커튼리 등 중심으로 신세계백화점 리빙 상품 매출도 82% 늘었다. 크리스털 소재에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추석 상차림 인증 사진에 분위기를 더할 수 있는 '빌레로이앤보흐' 고블렛잔, 달을 형상화한 디자인에 유기 소재로 눈길을 끄는 '놏담' 방짜유기 달수저 등의 판매량이 높았다.

문구나 모양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데다 실속도 갖춘 '골드바' 매출은 61% 올랐다.

/최빛나 기자

햇바 730만개, 라면 420만개 판매

고물가 시대, 편의점의 초저가 PB(자체 브랜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CU가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초저가 PB인 'HEYROO 득템 시리즈(이하 득템 시리즈)'가 알뜰 소비 트렌드를 이끌며 이달 누적 판매량 2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CU 득템 시리즈는 김치, 라면, 계

란, 티슈, 피자, 시리얼, 닭가슴살 등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구매 수요가 높은 30여 종에 이르는 품목들을 일반 상품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득템 시리즈의 상품별 판매량을 보면, 햇바 득템(3종, 2300원) 730만개, 라면 득템(5입, 1900원) 420만개, 쌀밥 득템(6입, 7200원) 310만개, 티슈 득템(800원) 120만개, 계란 득템(15입, 4900원) 90만개 순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최빛나 기자

항생제 최소화 노하우·경험 공유... “내성 저감 노력 함께”

제3차 MFDS GCFA

‘원헬스’ 기반 항생제 활용 논의 박용호 서울대 명예교수 기조연설 내성관리 강화 등 지원사업 소개

항생제 내성이 ‘조용한 팬데믹’으로 불리며 전세계적으로 보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 내성 최소화를 위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제3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MFDS GCFA)’를 열고 있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국제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원헬스(One Health)’ 개념에 기반한 효율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원헬스란 환경, 동식물, 사람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12일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제3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청하 수습기자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는 박용호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노력 ▲식품, 인체, 환경 등 항생제 내성 실태 현황과 저감 전략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인 13일에는 ▲항생제 내성 저감 및 분석·추적 최신 기술 ▲FAO가 몽골, 네팔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이 소개된다.

첫째날인 12일에는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학 명예교수가 ‘동물, 사람 그리고 식품에서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이날 박용호 교수는 항생제 사용이 특히 식용 동물 생산에서 이점을 가진다며 “항생제는 동물 생존율을 높이고 동물 폐기물은 줄여주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농업이나 축산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항생제 내성균의 확

산은 ‘조용히 밀려오는 쓰나미’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동물에서 주요한 내성균이 사람에서도 발견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 인체 내 감염, 지역사회 간의 잦은 이동 등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으며 병원균을 매개로 한 식품 질환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호 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생제 저감을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일동후디스

‘트루맘’ 아기모델 모집

일동후디스가 2024년 트루맘 달력 제작을 위한 아기 모델 모집 이벤트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육아맘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24일 까지 스튜디오에서 찍은 아기의 ‘100일·200일·돌’ 사진 중 하나를 촬영 이유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뒤 트루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신청이 완료된다.

최종 선발된 14명의 아기는 2024년 트루맘 달력 모델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과 간식이 포함된 ‘트루맘 선물박스’와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내달 화장품 소재 효능 평가 서비스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 MOU 기술교류 등 서비스·사업 협력 확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을지대학교 피부생명과학연구소와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을지대 생명과학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화장품 소재의 효능 평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10월부터 화장품 소재의 효능 평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 간에 기술교류, 프로젝트의 공동수행, 공동마케팅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왼쪽)와 이창석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장이 지난 달 29일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및 영업 분야에 대해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의 발굴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잔인하고 불필

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3년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화장품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의 판매 금지 규정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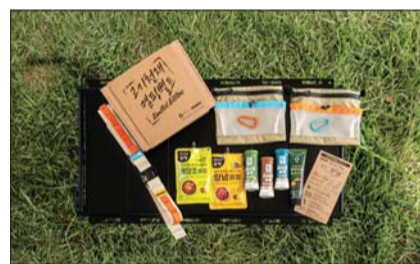
이후 여러 국가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비동물 실험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동물대체 시험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오가노이드 기반의 시험법이 동물대체 시험법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미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피부질환 및 탈모, 발모 관련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

기반의 화장품 효능 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 효능 평가 수행 연구와 관련 서비스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는 을지대 미용화장품학과 교수들이 개설한 연구센터로써, 화장품 바이오 효능 및 제형약리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장품 기업체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화장품 효능 평가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화장품 효능 평가수행연구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청정원X고아웃 고기천재 캠핑벨트 /대상

청정원-고아웃코리아

‘고기천재 캠핑벨트’ 완판

대상(주)의 청정원이 고아웃코리아와 협업해 선보인 기획상품 ‘청정원X고아웃 고기천재 캠핑벨트’가 캠핑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연일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청정원X고아웃 고기천재 캠핑벨트’는 ▲순창 양념쌈장 ▲순창 청양초쌈장 ▲명이나물 생(生)와사비 ▲허브맛솔트 3종(와사비맛/순한맛/마늘&양파맛) 등 총 6종의 고기전용 제품과 ▲투패널 파우치 ▲톨벨트 ▲카라비너 등 4가지 변형 기능을 갖춘 캠핑벨트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유통업계 신제품

애경산업

리큐 제트 ‘프로 포인트 샷’

애경산업이 섬유유리 일상생활 속 ‘부분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품을 선보인다.

생활부터 기업애경산업의프리미엄세탁제 브랜드 리큐 제트(ZeT)는 ‘프로 포인트 샷’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밀도가 높아 쫌쫌하게 생성된 거품이 각종 섬유 오염에 강하게 부착되면서 얼룩을 제거한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을 분사할 수 있으며 파워 효소를 함유해 소매, 옷깃 등에 깊게 밴 피지 얼룩부터 음식물 오염, 화장품 얼룩까지 다양한 생활 얼룩을 세척할 수 있다. /이청하 수습기자

생명공학 ‘아-태 감염병 실드 포럼’ 개막

베트남·인도 등 8개국 대표자 참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2~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실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실드(APIS)는 아-태지역 신변종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구 협력 체계이다.

이번 포럼에는 APIS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8개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의 감염병 대표자들이 참석해 팬데믹 전후의 감염병 연구현황

및 문제점, 미비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국가 또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우선순위를 발굴하여 다음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생명공학연구원 류종민 박사는 “지금까지 아시아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감염병 대응 지원은 선진국이 주도하며 지원대상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중저소득 국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엑세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

美 큐라페이션트 신주 지분 확보

팜젠사이언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 미국 기업 엑세스바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큐라페이션트의 신주 지분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기업 큐라페이션트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환자와 의사, 병원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 플랫폼 ▲미국 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방, 진단, 처방, 치료를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할 계

획이다.

특히 미국 기업 큐라페이션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연방 정부가 부여하는 FedRAMP 인증에서 ‘High’ 및 ‘Agency Wide’ 등급을 받았다.

엑세스바이오 관계자는 “미국 내 헬스케어기업 중 유일하게 큐라페이션트가 높은 등급을 받아 큐라페이션트만이 미국 연방 정부 내 각 기관의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미국 공공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SK에코플랜트-넷스파, 폐어망 재활용 사업 추진
SK에코플랜트와 넷스파(NETSPA)가 동남아에서 공동 추진하는 폐어망 재활용 사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예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11일 SK에코플랜트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폐어망 재활용 사업 협약식에서 이대혁 SK에코플랜트 글로벌에코BU 대표(왼쪽)와 정택수 넷스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현대이지웰, 서대문구청에 소외계층 후원금 전달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털 복지솔루션기업 현대이지웰은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서대문구 소외계층 후원금 3000만 원을 서대문구청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영순 현대이지웰 대표(오른쪽)와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롯데GRS,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기부금 기부
롯데GRS는 전날 롯데의료재단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의 건립 및 운영 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장(오른쪽)과 윤연중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왼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GRS



오비맥주, '몽골 카스 희망의 숲 나무심기' 봉사
오비맥주가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2023 몽골 카스 희망의 숲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로, 오비맥주의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이다. /오비맥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하늘정원 무료 개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하늘정원에 코스모스꽃밭 3만6000㎡를 조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4주간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늘정원은 공사가 인천공항 동남측 유휴지(38만㎡)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더불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항명소"라고 소개했다. 하늘정원은 작년 한해동안 총 18만 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올해 초는 2주간 약 4만여 명이 유채꽃밭을 찾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 NH농협은행 'SSAFY' 합류... 25억 기금 마련

〈삼성청년SW아카데미〉

청년 취업경쟁력 제고 등 MOU 이석용 회장 "일자리 창출 기여"

4대 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에 힘을 보탠다. 삼성은 12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NH농협은행과 '청년 취업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SSAFY는 지난 6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도 하반기부터 교육 과정에 동참하게 됐다. 각 5억 원씩 출연하는 기금 규모도 25억원으로 늘었다. SSAFY는 지난 7월부터 4대 은행과 기초 SW 교육을 받은 교육생 대상 핀테크 관련 기초 SW 프로젝



(왼쪽부터)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아이들과미래재단 이훈규 이사장

트 및 현직 개발자 멘토 등을 제공해왔다. 추후 채용박람회 에 '금융 특화관'을 신설해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SSAFY는 수료생 중 금융기관 취업 비율이 증가하면서 금융권 관심을 확인해왔다. 1기에서는 33명이

있지만 7기에는 153명으로 누적 806명이 금융권에서 근무 중이다. SSAFY는 은행들이 SSAFY를 직접 지원하면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실력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상생의 선순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SW 개발자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는 SSAFY 서울캠퍼스의 정재용 교육생은 "실제 은행에서 근무하는 SW 개발자가 노하우, 문제 해결 방법을 전수해 줬 실전과 같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간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은 SSAFY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SW멤버십과 SW직군 신설, SCSA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SW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해 왔다. 이 노하우를 활용해 초·중학생 대상 삼성주니어SW아카데미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임직원, 재활용 강사 변신

서울 초교 8곳에 자원순환 교육 "지속가능 삶의 가치 전달 노력"

LG전자가 초등학교생과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소개하고 환경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LG전자는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 8곳에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 법인 E-순환거버넌스가 진행하는 'E-순환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LG전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LG전자 직원들은 강사로 초등학교생들에 지구 오염 원인인 폐기물의 종류와 그 심각성을 통해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초등학교생들이 알기 쉽도록 그림을 곁들여 직접 만든 교육자료를 통해 가정에서 폐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버릴 수 있는 방법과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

생들도 다양한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LG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 경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세계 52개국 87개 지역에서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재활용 플라스틱을 다양한 제품에 적용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ESG 대학생 아카데미'와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 등으로 자원순환 교육과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흥성민 ESG전략실장은 "제조제품 기획, 생산,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함으로써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사진 중앙)와 금호석유화학 임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화, 청계천 환경정화 팔 걷어

백종훈 대표 등 생태교란식물 제거 수행했다. 그 외에도 생태교란식물과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강의를 듣고 대표적인 공기정화식물인 털란 드시아 이오난사를 활용한 테라리움(화분)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했다. 이날 임직원들과 활동에 함께 참여한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금호석유화학 본사 역시 청계천에 위치한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연과의 공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임직원을 독려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호석유화학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청계천 생태학교에서 백종훈 대표를 비롯한 본사 직원 30여명이 모여 청계천의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고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12일 밝혔다. 이날 5명씩 6개 조를 편성해 활동에 나선 금호석유화학 임직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장마철 집중호우를 지나며 급격히 번식한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정화활동을

소진공-도로공, '백년가게' 활성화 맞손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지원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전국 백년가게가 더욱 활성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 경북 칠곡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백년가게 맛집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백년가게 맛집을 활성화해 음식 맛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소상공인 상생 활동에도 서로 협력한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백년가게 매장의 BI 개발 및 사용 지원,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왼쪽부터)소진공 박성호 이사장, 한국도로공사 합진규 사장,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정승환 협회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백년가게 맛집 유지를 위한 업체 발굴 및 운영 지원에 나서고 휴게시설 협회는 휴게소 내 백년가게 맛집 입점 지원 전반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도전하세요”

동아쏘시오그룹 내달 11일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10월 1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제41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한 마로니에 백일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여성을 위한 문학 공모전이다. 여성이면 누구나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등 한 부문을 선택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접수는 9월 27일까지 문학광장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정할 수 있다. /이정하 수습기자 mlee236@

동아쏘시오그룹 내달 11일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10월 1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제41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한 마로니에 백일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여성을 위한 문학 공모전이다. 여성이면 누구나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등 한 부문을 선택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접수는 9월 27일까지 문학광장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신정할 수 있다. /이정하 수습기자 mlee236@

인사·부음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임용 △국 제통상협력과장 박수민

▲김군배씨 별세, 김종윤(홍플러스온라인MD본부장)씨 부친상 = 12일,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오후 16시, ☎02-2019-4000

미래를 먼저 만날 SU 있다 삼육대학교.

사람중심의 창의융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 SW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삼육대학교에서 먼저 만날 SU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함창호

2024학년도
수시모집안내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수시모집일 : 2023년 9월 11일(월) ~ 9월 15일(금)
입학처전화 : 02-3399-3377~3379
기타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syu.ac.kr>)로 문의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선생님, 접니다'



김 준 영 역
청명과니

“센세이, 와타시데스. 아노 ‘다이주’데 스요.”(선생님, 접니다. 대중입니다) 1998년 10월 7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던 ‘무쿠모토 이사부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한 말이다.

당시 한일 관계는 험악했다. 일본에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강경대응했다. 양국 국민의 감정의 골도 깊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먼저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을 배려해서, 무쿠모토선생님을 영빈관으로 모셔왔다. 이 때 대통령도 70이 넘는 나이였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웃음을 가득 띤 천진난만한 학생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 모습은 일본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었다. 그리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제 간의 정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녹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로 기억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렇듯 사제지간의 정이란 것은 보통의 인간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고, 애뜻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은사님을 찾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깊은 동질감을 느꼈으리라. 이런 동질감이 역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스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들은 이를 악물고 교단을 지켰지만, 이제는 한계다.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터졌고,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몇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비보가 이어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특히 추모집회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아동학대 처벌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정

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선생님을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악용해서,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선생님을 정서학대로 고발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께서 ‘누구나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제자들이 장년층이 되었다. 살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사는 것은 이리도 힘들까?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만든 세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세상’일까?

누구나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한분쯤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은사님처럼 훌륭하길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원한다.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르침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마음의 기둥이 된다. 이런 기둥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은 스승의 등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무심코 던진 돌과 개구리



김 정 선
(금융부)

6년 전 보행자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곳에서 운행 중인 경차에 무릎이 스쳤다. 다치지지는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사건을 접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건 접수를 만류했다. 보험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것이라고 했다.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십여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는 한 보험대리점(GA)에서 수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안부를 묻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 대화 소재가 고갈되자 분위기가 무거웠다. 낯지시 GA사의 불법 영업에 관해 물었다. 생각보다 허심탄회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불법영업을 단행한 설계사 중 적발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입자가 설계사와 큰 마찰을 빚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에 애써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며 불법영업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구리를 죽인 꼬마에게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맞는 비유인가 가우뿔했다. 마지막에는 꼭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금감원 내 보험영업감사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GA사의 불법 영업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대리 서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사은품까지 다양하다.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허위 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그중에는 생소한 회사도 있지만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GA까지 있다.

가입 당시에는 서로에게 이득인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값의 식당이라면 아는 사람 영업점에서는 음료수 한 병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심리다. 그러나 보험은 금융상품이다. 돌고 돌아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해당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둔다면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혜택에 차질을 빚을 여지도 존재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는다.

불법영업의 대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후 불법 영업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담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은 나쁜 선례를 쌓고 있는 격이다. 모르는 사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한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야 할 때다. /kimsan119@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3일 (음 7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무지가 지식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한다. 48년생 주변에 사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60년생 자신감은 내면에서 온다. 72년생 보석이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84년생 어제의 경쟁자가 동지가 될 수도.
- 소** 37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49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지치고 힘이 드는 하루. 6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다. 73년생 내가 놓은 뜻에 내가 걸린다. 85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다.
- 호랑이** 38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윌다. 5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62년생 기쁨과 근심은 종이 한 장 차이니 마음먹기 나름. 74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된다. 86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라.
- 토끼** 39년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5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63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75년생 원숭이따가 어려운 일을 도와줘 쉽게 해결. 87년생 걸 다리고 속 다르게 뜻이 있다.
- 염** 40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5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 64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옷치 않는다. 76년생 좋은 일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 8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주변을 살펴라.
- 象** 41년생 때로는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 53년생 비가 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이 필요 없다. 65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 해 열흘이다. 77년생 상대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마라. 89년생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
- 말** 42년생 재물이 아파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명심. 54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요소. 6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먼저. 78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9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 양** 43년생 생각하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55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67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9년생 행운에 마음이 기쁘나 복병이 있다. 91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 좋은 날.
- 원숭이** 44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56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68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 80년생 이성 약속에서 약속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 92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해야 한다.
- 닭** 45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외부 기준에 두지말라. 57년생 표리부동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69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81년생 된다 하면 정말로 이루어지니 신념이 중요. 93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날.
- 돼지** 46년생 돌아갈 수 없기에 지난날이 더 생각난다. 58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 70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82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94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가져라.
- 돼지** 47년생 정서적 지지와 배려가 상대에게 큰 힘을 준다. 59년생 슬금아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뜻을 이룰 수 있다. 71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하지 않을까. 83년생 떠벌리기 보다는 침묵도 지혜. 95년생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말을 인식할 것.

김상회의 四季 칠성기도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칠성기도는 삼백육십오일 항상 진행형이지 않을 까 싶다.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칠성신들은 수명 건강 자손의 점지와 창성을 기원할 때 강력한 효험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필자가 주석하는 작은 암자인 월광사의 오랜 신도인 P여사는 칠성기도에 대해서 진심이다.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녀 역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라 항상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스러운 터였기에 남편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그 때부터 칠성기도가 생활화된 것이다. 그녀의 칠성기도는 이와 같다.

칠성기도의 모태가 되는 ‘북두칠성명경경北斗七星延命經’에 보면 칠성님들이 달마다 하강하는 날 일마다 하강하는 날과 함께 칠성기도를 올리는 날 등이 적혀 있다. 일테면 북두칠성이 일마다 하강하는 날에 대해서는 정월의 경우 정월 초사흘 초이레 초여드레 보름 이십이일이 십육일이십칠일 등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 이런 날 새벽에는 반드시 북두명경 약본과 함께 북두주를 읊으며 기도와 발원을 한다. 물론 칠성님께 달마다 예배하는 날이라 하여 매일 마다 해당 일에는 기도 과정에 약본이 아닌 북두명경 전문을 독송하는 식이다.

기도발원을 올리는 날마다 장독대는 아니더라도 책상 위에 물 한 잔 올리고 천원씩 놓는다. 칠성기도는 특히 먼 길 떠나 있는 가족의 안위를 위한 맞춤형(?)기도라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연구로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예로부터 자손의 점지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먼 길 떠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 무사귀환을 위해 정성스런 기도를 올리곤 했다. 올해 칠월칠석에는 부슬비 대신 소낙비가 내렸다. 칠월칠석날의 비 내리는 전통은 올해도 증명되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2	5		3	4		
		4	9					2
		5						9
3	2			1				
5	6					1	3	
		8				6	5	
7						9		
8			4	9				
	5	9		1	8			

		8	9	3				7	
	4							5	3
3			4	7					
4	2								
8	9		6			5		7	
						1		2	
				9	7				1
6	9							2	
	8			4	1	9			

정답

2	7	8	1	8	6	9	9	
9	9	1	6	7	2	8	8	
8	8	6	9	2	9	7	1	2
9	9	2	7	8	8	1	6	7
8	1	2	7	9	6	8	9	9
7	6	8	1	9	5	2	8	8
6	2	9	8	1	9	7	2	
2	8	9	9	6	7	8	2	1
1	7	8	2	9	2	9	8	6

간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생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 가능... '4대 요건' 손질

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 조치 비수도권 '대학-사이버대' 통합

앞으로는 대학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운영 중인 대학은 기존처럼 큰 규모의 교지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지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완화... 교육·재정 여건 개선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설립할 때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지	교지 기준면적 폐지 *단,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필요
교사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인문·사회: 12㎡,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14㎡
교사·교지 소유원칙	교사 확보율 100% 초과 시, 교사·교지 임차 가능 *단, 대학의 교지경계선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km 이하이며, 대학의 교지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을 것
산정기준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교사·교원 확보 기준 산정 시 '재학생 수' 적용
대학 통·폐합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편제완성정원 내에서 가능 *전공대학, 비수도권 사이버대학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
수익용 기본재산	(양적기준 완화)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 만큼 확보 필요 (성과기준 적용)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할 경우 확보 인정

자료/교육부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육부는 앞서 전체 교과목 20%까지만 원격수업 편성이 가능했던 규제를 지난 2020년 9월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대학 시설) 기준은 원격수업과 대학간 자원 공유 등 추세에 맞춰 완화된다. 개정안 따라 앞으로는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최저주거기준상 1인당 최소 주거

면적인 14㎡로 일괄 적용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2㎡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재 풀어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던 조건은 삭제된다. 그간 전문대가 대학과 합치려면 전문대 입학정원을 최대 60% 줄여야 했다. 앞으로는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다.

사이버대학과 일반대 간 통폐합을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의 통폐합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교원 확보 기준도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기존 1/5에서 1/3까지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으로 유지한다.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완화해 법인 재정 기여 촉진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 대학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학교법인 분리'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거나,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 이때 수익용 기본재산은 분리되는 법인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했다.

이후 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올 중3·고2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실시

전체 학생 3%, 2만4835명 대상 "미래 핵심역량 진단 계기될 것"

중학교3학년과 고등학교2학년 학생 3%를 뽑아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



교육부.

/메트로

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272개 중학교 1만4642명, 204개 고등학교 1만193명 등 총 2만483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교과는 중학교 3학년은 국어·수

학·영어·사회·과학,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수학·영어다. 평가는 지난해 도입된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PC·노트북, 네트워킹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어르신 건강동행' 25개 자치구 확대

서울시는 내년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은 동네 의원의 전문적인 치료와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연계로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15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263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동네 의원을 찾은 어르신 중 영양관리, 재활치료, 복지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이 필요한 대상자의 의사가 보건소로 관리를 의뢰하면 건강동행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이 2개월간 자택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준다. 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건소의 건강관리 서비스 결과는 의료기관으로 전달된다.

시는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건강서비스와 치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 연차평가 2가지 평가 모두 'A 등급'

호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1차년도 연차 평가에서 교육혁신전략 및 자체성과관리 두 평가항목 모두 'A 등급'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국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전면 개정

교원 교육활동 보호 책임 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원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 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9월 13일 (수)

음력: 7월 29일

수도권 날씨

22~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2 | 해질 / 18:44

연천 20/26, 동두천 20/27, 가평 20/26, 파주 20/27, 서울 22/27, 양평 21/26, 인천 23/26, 수원 22/26, 용인 22/26, 평택 21/26, 백령도 20/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수석 英총리 “중국 간섭 용납하지 않아” /사진 뉴시스
▲머스크, 러 합정 기습공격 시도 우크라이나 접속 차단... 美정부 당혹

▲미국인들, 역대 가장 부유하지만... 카드빚도 가장 많다
▲中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 美바이트 연금에 반발



▲기시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오부치 딸 선대위원장 기용 가닥
▲9·11 22주기 참석한 바이든... “테러리즘, 美영혼은 공격 못해” /사진 뉴시스



휴게소·야구장 등
푸드코트 활기
컨세션 사업 확장
나



MFDS GCFA
항생제 내성 최소화
노하우·경험 공유
L2

방공호? 땅굴?... 40년 감춰진 '비밀의 공간'을 열다

♥ 되살아나는 서울

서울광장 지하 '숨은 공간'

서울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에는 963평 크기의 거대한 지하 공간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40년간 존재를 감추고 있던 도심의 숨은 공간을 발굴해 이달 8일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지하 공간은 시청 앞 서울광장 지하 13m 아래 너비 9.5m, 총 길이 335m, 면적 3182㎡ 규모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공공에서 임의로 장소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숨은 공간을 되살리는 게 더 의미 있다는 판단하에 '지하철역사 상상공모전'을 실시하고 이곳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시청-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공간 40년만에 공개 '시민탐험대' 진행

시청 지하 '태평홀'서 시작하는 투어
지하 속 보석같은 종유석, 석순도
환기장치 부재 등 방공호 가능성 없어
2호선 개통 과정 부산물로 추정



서울광장 아래 지하공간에 생긴 종유석. /뉴스1

◆시청 지하 '숨은 공간'의 정체는?

지하공간을 둘러보기 위해 '숨은 공간, 시간여행: 지하철 역사 시민탐험대'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전 신청 첫날인 6일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 접속했는데 이게 웬걸 대기 인원이 수십명이었다. 오전 9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참가 신청 버튼을 짹짹 클릭해 예약에 성공했다.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접수가 마감됐다는 문구가 떴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 당혹스러웠다.

투어 당일인 8일 오전 시청역 시민청 지하1층 제2청년활동소에 도착했다. 서울독을 통해 받은 예약내역을 서울시 담당자에게 보여줬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숨은 공간'이라는 단어가 적힌 예코백과 생수 1병, 장갑, 브로셔를 건넸다. 투어 코스는 ▲서울시청 지하 '태평홀' ▲을지로입구 교차로 지하 '시티스타몰' ▲지하철역사 탐험대상지 '숨은공간' ▲세종대로와 서소문로의 지하 '지하철 시청역' ▲세종대로 지하 '아워 갤러리' (구 덕수궁 지하보도)로 구성됐다.

시는 "지하공간의 혁신적인 변화는 2호선(을지로입구~성수 구간, 1983년) 개통과 함께 시작했다. 1호선이 지하철 선로와 역사를 통신구 조성하고 연계해 개발한 것이었다면, 2호선은 지하철 선로와 역사를 상가(아케이드)와 이어 만든 것이 주요 특징"이라며 "이 당시 기조성된 새서울지하상가와 1977년 구축된 을지지하상가를 연결해 전국에서 제일 긴 지하상가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탐험대는 시티스타몰 아래와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쪽에 자리한 '숨은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시는 이달 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공간은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장소"라고 했다. 장소 공개 후 현재까지 "방공호다", "북한군이 파 놓은 땅굴이다", "현대판 아관파천 피신로다" 등 숨은 공간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방공호일 가능성 '0'

장난감 도서관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군데군데 검은 곰팡이가 낀 누리끼리한 벽이 눈에 들어왔다. 과일과 식물이 바구니에 든 그림이 그려진 벽지가 거칠게 떨어져 있었고, 고장난 수도꼭지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스태프들은 시민탐험대에게 조명이 달린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나눠줬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컴컴한 터널로 들어섰다. 바닥엔 먼지가 얇은 이불솜마냥 깔려 있었다. 터널 가운데로는 성인 두명이 양팔로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 굵기의 기둥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섰고, 벽에는 235m, 83m 등 치수를 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는 기둥의 용도를 ▲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할 때 엇갈리는 걸 막기 위한 것 ▲지상에 도로와 빌딩의 하중을 고려해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했다.

잔걸음으로 지하공간을 살피던 탐험대들은 종유석과 석순을 보고 "우와!"하는 탄성을 내뿜으며 어둠 속에서 눈빛을 반짝였다. 그 모습이 마치 '호프 다이아몬드'를 목격한 보석상인과 같았다. 종유석은 천장에 고드름마냥 길고 가느다랗게 달렸고, 그 바로 밑에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디그다'처럼 생긴 석순이 자라 있었다. 어른과 아이 머리통을 붙여놓은 것만 한 크기였다.

이날 투어 가이드를 맡은 이재원 도시건축정류소 대표는 "숨은 공간은 우리가 과거를 먹다 남긴 '부스러기' 같은 장소"라고 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는 1983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성수구간을 개통하며 시청역에서 1호선과의 환승을 위해 지하 3층 깊이로 지하철 선로를 건설하고 이를 새서울지하상가와 연결하기 위해 지하 1층에 지하상가를 조성했다. 당시 새서울지하상가와 을지로입구역의 바닥 높이가 달라 계단을 계획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숨은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임종현 서울시 공공건축2팀장이 태평홀 앞에서 지하철 역사 시민탐험대에게 숨은 공간 투어 전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시민들이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숨은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방공호일 가능성이 제로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 공간이 환기가 안 되고, 빛도 없고, 너무 덥다. 방공호는 살려고 만드는 것인데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또 방공호라면 숨어 있어야 하는데 사람 많은 지하철이 다니는 자리 바로 위에 만들었을 리 없다"고 답변했다.

기둥구역을 지나면 12m 폭의 무주공간이 나온다. 이전 구역과 달리 하중이 덜한 서울광장이 상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둥이 없는 형태로 설계한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무주공간을 걷다가 녹슨 철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 앞에는 덕지덕지 테이프칠이 된 A4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출입문을 항상 닫아주세요. 문이 개방되어 있으면 환기설비 가동 때 외부공기 유입으로 터널 내 공기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부탁해요'란 당부의 말이 적혔다. 환기 장치가 없어 서울광장 숨은 공간을 방공호로 볼 수 없다는 시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서울광장 지하 공간이 방공호처럼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문서의 부재'다. 1000여평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숨은 공간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데 이곳을 설명하는 제대로 된 공문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 대표는 "서울광장 지하공간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만들고 거기에 있던 문서가 서울교통공사로 이관됐다. 그 과정에서 자료들이 많이 손실됐다"고 말했다.

임종현 서울시 공공건축2팀장은 "지하철 역사를 지으면서 같이 만든 거니가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거다"면서 "시는 여기가 언제 지어졌느냐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안 쓰고 있던 곳을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 시민탐험대 투어 프로그램은 9월 8~23일 매주 금·토요일 하루 4회(11·13·15·17시) 운영되며, 공모는 내달 10일까지다. 시는 투어 행사의 온라인 접수가 당일 1분 컷으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기간에 사전 예약 대신 현장 접수를 받아 보다 많은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프로축구선수협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선처 없다"
▲40도루 보인다...김하성, 35호 도루·2G 연속 안타 활약 /사진 뉴스1

▲獨 꺾은 뒤, 아시안컵 우승후보 부상...韓과 격차 더 벌어질라
▲"개막 다가오자 분주"...항저우 AG, 개막식 총연습 진행



▲항저우AG 韓 대표 최고령은 73세 임현...최연소와 62세 차
▲데이비스컵 나서는 권순우 "어떤 상대와 하든 자신있다" /사진 뉴스1